

오월 시민군 필체...지친 삶에 의지 불어넣다

■ 5·18 시민군 필체 폰트 제작 디자이너 정성영씨

‘승리의 그날까지’ 등 서체로 광주정신 전파 주력
현실적 한계 넘어 그래픽툴·프로그램 활용 완성
“하루 버티게 하는 힘 되길”...9일까지 무료 배포



“1980년 5월, 시민군들이 전남도청 앞 광장에 모였을 때는 민주주의를 이룩하겠다는 거창한 의미 보다는 내 가족, 친구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을 거예요. 현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글씨를 통해 그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폰트를 제작했습니다.”

1980년 5·18 시민군 필체를 바탕으로 ‘승리의 그날까지’라는 폰트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 디자이너 정성영(38) 씨는 최근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그는 “글씨가 가진 힘은 절실함에 있다. ‘승리의 그날까지’ 폰트는 글씨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그 마음의 형태 즉, 각오와 의지의 모양을 다시 그리고 싶었다”면서 “어떤 난관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의지와 정의로운 마음을 시각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대 공대를 다니다 3학년 때 시각디자인과로 편입, 현재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그가 폰트를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0년 5·18 40주년 행사 슬로건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이 포천막 걸리체로 쓰인 것을 보고, 5·18 정신이 담긴 폰트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폰트를 제작해본 경험이 없어 복고풍 글씨체(양진체)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김양진씨의 SNS로 무작정 연락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디자이너 정성영

특히 폰트를 제작하기에 앞서 글씨체를 규격화하기 위해서는 손글씨 200여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관련 문서나 사진 등을 통해 모티브가 될만한 글자를 찾아 발전시켜보려 했지만, 샘플로 쓸 글자수가 열 글자 내외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다 최근 그동안 모은 자료에서 보지 못한 사진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사진자료집 ‘5·18 기억과 진실’에서 발견하면서 폰트 제작이 급물살을 탔다. 1980년 5월 24일 오후 3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2차 범시민광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살인마 전두환’ 글귀가 적힌 허수아비를 만

들어 분수대 위에서 화형식을 하는 사진이었다. 분수대를 둘러싼 현수막에는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자 독재없는...’이라는 시민군의 글씨가 뚜렷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한 획, 한 글자로 시작해 한글과 영문 2500자를 그려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툴로, 다시 폰트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옮겨 완성시켰다.

폰트 배포와 관련해서는 디자이너에서 문화기획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던 중 부족한 점을 느끼고 찾아간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호랭이스쿨’에서의 경험을 살려 한글날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무료로 하고 있다. 이 폰트를 이용해 기념 캠페인 ‘당신의 문장이 응원이 될 때’도 진행 중이다.

디자이너 정성영씨는 “역사가 담긴 이 글씨체가 다양한 곳에 사용될 때 5·18을 기억하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해 기념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여두고 매일 보면서 자극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폰트 내려받기 또는 캠페인 참여는 참여링크(tillvictorycomes.tistory.com/page/Archive)에서 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한·중 예술가 간 오랜 인연...아트 매개로 교류 촉진

한중문화예술교류협 등 주최 ‘브릿지-광주’展
오늘부터 은암미술관서...회화·응북합 설치 등

한·중 예술가 간의 오랜 인연을 이어가며, 새로운 세대의 국제적 예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전시가 마련된다.

5일 은암미술관(채종기 관장)에 따르면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술관 전관에서 국제 교류전을 ‘브릿지-광주’(Bridge-Gwangju)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이번 전시는 미국에서 15여 년간 ‘레지던스 HCCA(Hudson Center for Contemporary Arts)’를 운영하며 중국 작가의 대외 활동을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해온 칑쉐우(Zheng Xuewu)와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대표 엄기준·이하 한중교류협회)의 공동 기획으로 마련됐다.

레지던스 HCCA는 중국계 미국인 및 뉴욕에서 활동 중인 작가 10명을 선정해 광주를 방문하게 하고, 25일 간의 창작 체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 동안 작가들은 광주의 예술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감각과 영감을 교류하며 작품을 완성할 방침이다.

공동 주관체인 한중교류협회는 해외 작가와 국내 작가 간의 실질적인

예술 교류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번 전시를 추진했다. ‘브릿지-광주 Bridge-Gwangju’라는 전시 타이틀에는 예술을 통한 문화적 연결, 그리고 미래를 향한 창조적 다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참여 작가들은 서로에게 예술적 자극과 새로운 원동력을 얻는 동시에, 지역 예술과 세계 예술이 만나는 국제적 예술 교류의 플랫폼

폼으로서 광주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참여작가로는 미국에서 Zheng Xuewu(칑쉐우), Wang Wenxuan(왕원취안) 등 2명, 중국에서 He Weina(허웨이나), Chen Yafeng(첸야펑), Yang Hengqi(양흥치), Cai Yu(차이위), Wang Wenwen(왕원원), Lv Jinkai(뤄진카이), Liu Yichen(리우이첸), Wang Dongyun(왕둥운) 등 8명, 광주에서 김상연, 김병택, 기영숙, 이한범, 재이씨 등 5명이다. 총 15명 작가들의 회화, 응북합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엄기준 대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예술적 배경을 지닌 작가들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만나, 상호의 감각과 언어가 교차하며 새로운 영감을 창출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종기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동시대 예술의 다양성과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함께 조명하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예술의 열린 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막식은 8일 오후 3시, 교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기영숙 작 ‘Kee Young Sook. 인민의 나라 The Land of the Renmin’



창작국악그룹 아이리아의 공연 모습.

달라진 수궁가 ‘몰입형 공연’으로 만나요

창작국악그룹 아이리아, 오늘 북구문화센터

창작국악그룹 아이리아(대표 김송호)의 제37회 정기연주회 이머시브 판소리극 ‘이상한 나라의 별주부’가 6일 오후 7시 30분 북구문화센터에서 펼쳐진다.

이번 작품은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판소리극으로, 관객이 직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몰입형 공연(Immersive Performance)이라 주목된다. 전통음악의 서사적 힘과 소리판의 열린 구조를 현대적 연극 기법으로 풀어내며, 관객이 단순한 감상자가 아닌 공연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관객들은 단순히 무대 위 이야기를 보는 것을 넘

어 용궁의 시민이 돼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고, 선택하며 이야기를 완성해 나간다.

작품은 병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온 자라 ‘별주부’와 그를 괴롭히는 토끼 ‘깡충이’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느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파도림당하는 별주부의 모습은 현대사회의 학교폭력, 배척, 불신의 문제를 은유적으로 담아내며, 토끼와 별주부가 서로의 몸이 뒤바뀌는 바디 스왑(body swap) 형식의 이야기 구조를 통해 공감과 배려, 우정과 신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한다.

공연은 네이버예약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전석 무료.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재즈와 퓨전국악이 채우는 ‘목요콘서트’

6일 아트플래닛 ‘비밥재즈’·20일 디딤돌 ‘퓨전국악’

광주문화재단은 6일과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11월의 목요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17회차 ‘아트플래닛’의 ‘Bebop Re-Invention-비밥재즈의 재창조’와 18회차 ‘디딤돌’의 퓨전국악 ‘도라지 산명’으로 구성된다.

6일에 진행될 ‘아트플래닛’의 ‘Bebop Re-Invention-비밥재즈의 재창조’는 비밥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리듬과 사운드를 더한 재즈 무대다. 빌 에반스(Bill Evans)의 ‘Waltz for Debby’, 아트 블레이크(Art Blakey)의 ‘Moanin’ 등 생동감 넘치는 정통 하드밥 레퍼토리 중심의 깊이 있는 선율과 열정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채운다.

무대를 준비할 ‘아트플래닛’은 색소포니스트 박수용을 중심으로 결성된 밴드로, 비밥·하드밥의 예술적 정신을 계승하며 실험적인 사운드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왔다.

무대에는 리더이자 알토색소포니스트 박수용, 테너색소폰 황태룡, 재즈피아노 강윤숙, 베이스 전사무열, 드럼 윤영훈이 참여한다.

20일 열린 ‘디딤돌’의 ‘도라지 산명’은 민요 ‘도라지’를 모티브로 전통의 숨결과 현대적 감성을 조화롭게 엮어낸다. 창작국악과 현대음악 요소를 결합해 청아한 선율과 섬세한 감정이 어우러지는 감성적 무대를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디딤돌’은 문화예술을 통한 열린 문화사회를 조

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악과 현대 음악을 융합하는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다. 연주 공연, 다양한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사업 연구·교육 등 비영리 사회공헌 활동과 자선활동을 통해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바이올린 백진선·김시아, 비올라 김주영, 첼로 이진·정현아, 피아노 광단우, 대금 김혜정, 소금 김민재, 해금 문보라, 타악 김누리가 함께한다.

‘목요콘서트’ 전체 객석의 10% 이상(약 10석 내외)은 광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하며, 수익금 전액은 공연팀에게 전달된다.

공연 정보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gjcf.or.kr),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bitculture.gjcf.or.kr),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더이마이광주’(dmg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5000원.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문화재단은 6일과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11월의 목요콘서트를 선보인다. 사진은 6일 무대를 준비할 아트플래닛.